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383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국조실장 “홍범도함 명칭 변경, 정부 내 공식 검토 아직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해군 잠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란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아직 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

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며 “계속 물으니 ‘이러한 것은 바꿔어야 하지 않느냐’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결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한 총리의 예결특위 답변과 같은 맥락이라고 방 실장은 부연했다.

방 실장은 “정부 내에 사전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면 국무위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고, ‘결정된 바 없다’라고밖에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선 “한 총리의 브리핑 전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렸다.

‘공교육 멈춤의 날’…“교사는 ‘외로운 섬’ 같다” 울분 토로 서이초 초등교사 49재 맞아 전국에서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에서 모여든 교사들이 국회의 사당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은 ‘공교육 멈춤의 날’ 주모행사에 참석한 동료 교사들로 북적였다. 겹은 옷을 입은 교사들은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카네이션을 손에 쥐고 숨진 서이초 교사 A씨를 추모하며 헌화했다.

교사들은 겹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원보호법의안 의결하라’고 쓰인 팻말을 흔들며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추모행사에 교사 및 시민 2만 여명이 모였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A씨 유가족의 편지가 낭독됐다. A씨의 모친은 편지를 통해 “앞으로 진실 찾기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너의 한을 풀어 주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떨

어질 대로 떨어진 교원의 사기 진작에 대한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이며 작은 위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정신건강의 김현수 원장은 “더 이상 교사들이 교사의 능력을 뛰어넘는 온갖 업무를 혼자 감당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교육청이, 또 학교에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 분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故)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법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에 공감했다. 22년간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한 50대 이모씨는 정신과 치료로 이번 학기에 병가를 냈다. 이씨는 교사들이 관리자 등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교사는 어디 한 군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내가 힘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섬’ 같다”며 “그래서 교사들이 그(힘든) 순간을 못 견디고 이렇게 아픈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교사들이 사망하니까 (나도) 자꾸 심장이 조이고 약을 먹어도 잡을 잘 할 수 없고 많이 힘들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도 계속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교사는 어디 한 군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내가 힘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섬’ 같다”며 “그래서 교사들이 그(힘든) 순간을 못 견디고 이렇게 아픈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교사들이 사망하니까 (나도) 자꾸 심장이 조이고 약을 먹어도 잡을 잘 할 수 없고 많이 힘들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도 계속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정무위 출석…“한총리 ‘수정 검토’ 발언은 개인적 의견 피력”

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명칭 변경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후 국방부 관계자가 “해군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방 실장은 “당시 의사록을 보면 의원이 (한 총리에게 명칭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한 총리는

/ 박현숙 기자

칠곡 종합병원서 입원 환자 흉기난동에

다른 환자 1명 사망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환자 1명이 사망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종합병원 6층에서 입원 환자 A(56)씨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환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병원 층에 범 행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층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해자인 환자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병동이 아니라서 소지품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종익 기자

친환경 발전소를 세우다 에너지의 미래가 새롭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한국서부발전
LNG 발전소를 통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합니다

① 김포 열병합 발전소	495 MW	2023
②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501 MW	2025
③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500 MW	2026
④ 남양주 열병합 발전소	499 MW	2027
⑤ 공주 천연가스 발전소	500 MW	2028
⑥ 태안 #5~8 저탄소 옥내화		2024
⑦ 이원호 수상태양광	43 MW	2023.6
⑧ 평택 만도태양광	3.5 MW	2023.9
⑨ 광주 광산 연료전지	8.4 MW	2023.1
⑩ 화성 남양#2 연료전지	19.8 MW	2023.2
⑪ 광주 초월 연료전지	9.6 MW	2023.2
⑫ 문경 #1 연료전지	15 MW	2023.8
⑬ 대구 마을형 연료전지	3 MW	2023.11

검찰 “이재명 2차례 소환 불응 유감…단식으로 조사 지장 초래”

검찰이 4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가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고 이 대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각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현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 있는 가운데,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향후 조사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달 23일 쌍방을 대북 송금의 흐름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

했으나, 이 대표가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결국 8월 30일 소환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재차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이 검찰에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

고 밝히면서 두 번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일엔 이 대표가 돌연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낼 전망이다.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을의 대답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 박현민 기자



전북 원로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 예산 제대로 지원해야”

전북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처사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대통령민주신당 대통령 후

방에는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잼버리와 새만금은 이성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쟁 연장선으로 가서는 안 되고 원로들이 나서서 국민들께 호소해 마음을 풀어줄 필요

前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리…이달 법원 판단 나오나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보류 지시 시점’ 등 쟁점…재판부, 양측에 증거 제출 요구

채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첫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심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이달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 “군검찰은 출기자에게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두 지시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는 피신청인인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단장은 수사를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해병대 수사 최고 지휘관이 공백인 상태인데, 해병대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사사건에 대한 업무 공백이 명백하다. 박 전 단장이 공정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차례 진행된 뒤 종결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날 본안 심리에 가까운 쟁점을 들을 언급했고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추석 전

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전 단장은 소송과 관련해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는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박 전 단장의 해병대 동기 등 10여명 자

리해 박 전 단장을 격려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전 단장에 대한 보직 박탈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일 박 전 단장에 대한 중앙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구속 반대 1만7천명의 탄원서를 이날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

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첨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고발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검찰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박 전 단장에게 통보한 상태다.

/ 이윤철 기자

김원기·김덕룡·이강국 등,

대폭 삭감 예산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보, 김홍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정·재계 원로들은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동영 전 후보는 “지역 원로들께서 유틸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무거운 마음이고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책임이 있는 분들이 모인 만큼 힘을 합쳐”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새만금은 전북 도민을 위한 게 아닌 국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책 사업

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덕룡 전 부의장은 “잼버리로 인해 새만금이 비하되거나 휴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지만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 새만금 SOC 예산 정상 복구 ▲ 언론의 새만금 동북아경제 중심지 도약 협조 등을 주문했다. 원로들은 상처 입은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 북지사는 “전북 어른들께서 나설 정도로 현재 상황은 위기”라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도형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부산만 330곳 넘는데…낡고 오래된 목욕탕 안전 사각지대

동구 목욕탕 화재 계기 안전점검 필요…109곳은 기름탱크 설치

23명이 다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를 계기로 소규모 노후 목욕탕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산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불이 난 목욕탕은 연면적 890여㎡ 크기로 1990년 11월 사용 허기가 난 33년 된 소규모 노후 목욕탕이다.

현재 소규모 목욕탕의 경우는 화재 안전 관리가 의무화돼있는 소방법상 '다중 이용업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1일 오후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화염이 시민들을 덮치고 있다.

확인된다. 특히 불이 난 목욕탕처럼 운영 기간이 30년을 넘긴 곳은 절반에 가까운 337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폭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증기'와 관련이 있는 기름탱크가 설치된 곳도 109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된 목욕탕일수록 유류를 사용하는

적은 지역은 점검 주기 다른 곳보다 길어지는 등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동구 목욕탕의 경우 지난해 4월 마지막 점검이 이뤄졌고, 당시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규모 노후 목욕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폭발 원인이 목욕탕 기름탱크에서 나온 '유증기'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황윤철 기자

여가장관 “농업용지에 급박한 부지조성 폭우 겹쳐 잼버리 파행”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 새 만금 세제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원인에 대해 농생명용지(농업용지)를 부지로 사용한 것, 부지 조성이 급박하게 이뤄진 것, 그리고 폭우가 겹친 탓이라고 4일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병현 의원이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행사 초기 어려웠던 원인은 농생명용지가 장소였다는 근본적인 한계,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끝나 2023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서 (잼버리) 운영상 문제가 없을지 살피는 프레잼버리를 2021년에 여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의 부지 선정 과정을 파행 원

이동관 “뉴스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지난 대 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

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뉴스스타파 보도는)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

하다"며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 강윤호 기자

년에 와서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적 급박함의 문제, 5

~7월 폭우로 배수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잘 규명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광레저용지가 농생명용지로 변경되면서 부지 조성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부지선정 경과 등이 굉장히 중요한 감사원 감사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부지가 2022년 12월에 조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

인으로 지목한 김 장관 답변에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회를 신청해 개최가 결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다. 대회는 윤석열 정부 때 개최해 실행했다"며 "그러면 국제대회를 성공시켜야 하는 게 현 정부의 기본적 자세 아니냐"고 따졌다.

허 의원은 "이걸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며 "유치한 것이 누구이고, 새만금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이 누구인데 그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맞섰다.

/ 송진영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일부 전화 서비스로 피해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은행 이야기

농촌 독거 어르신 말벗서비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길어진 추석 연휴에 김해공항 국제선도 만석…일본 등 인기

엿새 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예약률도 벌써 만석 조짐을 보인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다음 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예약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되자 예년 추석 연휴보다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기준 대부분 항공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일본 노선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도 항공권 예약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에어부산의 경우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은 예약률 90%를 웃돌았다.

제주항공 역시 오사카 노선이 90%

초반대로 가장 인기가 많았고, 도쿄와

후쿠오카 노선이 80% 중반대의 예약률을 보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일본은 엔저 현상, 짧은 비행거리로 원래 많은 여행객이 찾는 곳"이라며 "특히 짧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모처럼 긴 연휴를 맞아 비행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동남아·대양주 노선에도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몰렸다. 에어부산 부산~나트랑 노선 예약률이 90%를 웃돌았고, 대한항공과 제주항공도 대만 등 동남아 국가 노선이 만석을 기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는

가성비가 좋아 호캉스나 풀빌라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 휴양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연휴 대부분의 노

선이 예약률 90% 이상을 기록하는 반면 연휴 이외 날짜에는 60%까지 떨어지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연휴 유독 해외 여행객이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노선 역시 80~90%의 높은 예약률을 보인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첫 추석을 맞이해 고향 방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부 항공사의 경우 부산~제주·김포 노선을 중심으로 임시편을 편성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의 경우 탑승일이 임박해 예약률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왕효성 기자

금감원장, 라임사태 재조사에 “수익자 뺏다면 정치적 고려한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재조사와 관련해 불법 수익자를 제외했다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며 가감 없이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의 라임 사태 재조사에 대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기업 총수나 임원진, 금융사 최고경영자이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지 불법에 연루된 모든 것을 공론화해 알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부조리나 불법을 그때그때 알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십건의 보도자료를 똑같은 포맷



으로 냈다"면서 "자금 세습 확인된 패트 중심으로 보도한 것이며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뺏다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로 지목된 다

른 매할 수 있으며 돌려막기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당시 불가능했으며 특혜 대상자 중에 일부는 다른 펀드의 돈을 빼서 메워준 것도 있고 고유 자산도 있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고유자산을 개별 펀드에 자금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는지 묻자 "고유자금 전용은 전혀 다른 경우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라임 등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민규성 기자

오세훈, 차기 대선 시대정신 문자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

“이념 갈등 동의 못 하는 국민 늘어…정치권 전체가 긴장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차기뿐 아니라 그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 이 두 가지가 늘 시대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란 진행자의 질문에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취직이 힘들고 먹고살기 힘드니 늘 관심은 지속적인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빈부격차가 중간 이상으로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를바 계층이동 사다리가 점차 악화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까지 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교육해도 내 아이도 저기까지 갈 수 없다는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면 그만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짚었다.

‘약자와의 동행’은 오 시장의 시정 운영 슬로건이며 그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창의와 혁신 성장을 통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제고를 강조해왔다.

“과거 논쟁보다 미래로…먹고사는 문제·취직 이런말이 와닿아”

최다선 4선 서울시장

인 오 시장은 여전 내 ‘대권 잠룡’의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동안 차기 행보와 관련해선 ‘대선 도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정치 철학에 관해서는 소신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본인, 소속 정당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특정한 개별 현안이 아닌 원론적인 정치 흐름이나 현상과 관련해선 나름의 해석을 밝혔다.

오 시장은 여야의 보수·진보 대립 구도에서 정치적 성



오세훈 서울시장

향의 중도층 비중이 커진 데 대해선 “정치권 전체가 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극단적 이념 갈등을 보이는 정치권 흐름에 대해

련된 논쟁보다는 미래로 가줬으면 좋겠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아이 취직되게 해달라, 이런 게 저는 가슴에 가장 와닿는 말”이라고 답했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선 “지자체장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면서 “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겉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선거에서 유리한 사람 내면 되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등을 통해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국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기업이 결국 나라의 성장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면이 많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들어 흐트러진 이념적 측면을 바로 세우는데 많은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든다”며 “집권 초 1~2년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하고 총선 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단식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세에 대해 “야당은 야당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 그냥 놔두자. 판단은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은 “제가 언어표현이 인플레 돼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백현동, 대장동에 대해선 시장으로서 참을 수 없다”며 “(이 대표) 본인이 앞장서서 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는 걸 보면 사악하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동의 못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해도 틀린 것 이 아니다”라며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취직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신경 써주는 정치권이 보고 싶다. 여든 아든’이라고 하는 국민은 중도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은 특히 이런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보면서 즉응, 바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여당 내에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현장에서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먹고사는 데 관심이 많다, 요즘 정말 힘들다. 그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

이기 시작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과거와 관

김영호 통일장관 “윤미향, 현행법 위반 색깔론? 법에는 색깔 없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4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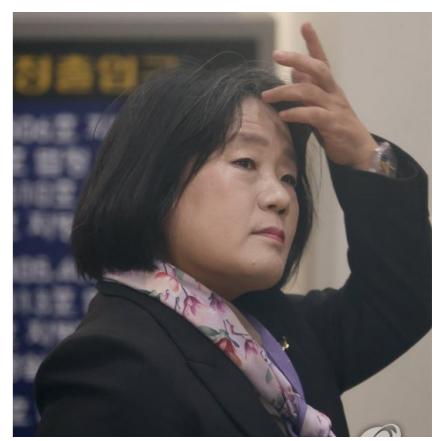
이어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며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윤미향 의원

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장호 국회 사무처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윤 의원은 자비로 다녀왔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윤 의원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의원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편의 제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어 “외교부 자체에서도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에 협조 공문을 받고 외교부에서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며 “그 절차에 따라 (윤 의원 지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 권효은 기자

국민의힘 광주·전남 내년 총선 ‘유력입지자들’ 관심

“좋은 인재들이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며 “후여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역구와 별개로 ‘광주·전남 몫’ 비례대표도 지역 정치권의 시선을 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세가 현저히 악화한 취약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해당 지역을 비례대표 우선주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광주·전남·전북’을 한데 묶어 취약지역으로 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지역 출신 인사 4~5명을 배치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유력 입지자들로는 광주 출신인 김기람 최고위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정현 전 대표, 친윤(親尹) 으로 각각 분류되는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내 상황 등 정국의 유동성에 따라 국민의힘 중앙당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지역 출신 인사들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내년 총선에 광주·전남 지역구에서 대중적인 지지도와 인지도를 갖추지 못한 후보는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유력입지자들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며 “특히” 호남 몫이 보장될 가능성성이 큰 비례대표 후보들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 박성훈 기자

The advertisement features several images of Samsung Bespoke Infinite Line kitchen appliances, including a refrigerator, an oven, and a cooktop. A handwritten note in Korean is overlaid on one of the images, reading: “모든 것은 변할수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나와 나의 인피니트 허브” (Everything changes, but some things remain the same; I and my infinite hub). The note also includes the text “BESPOKE Infinite Line” and “BESPOKE 허브 / 식기세척기 Infinite Line”. The background shows a modern kitchen interior.

경찰, 용인 모 고교 60대 교사 사망 사건 본격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학교 관계자 소환 조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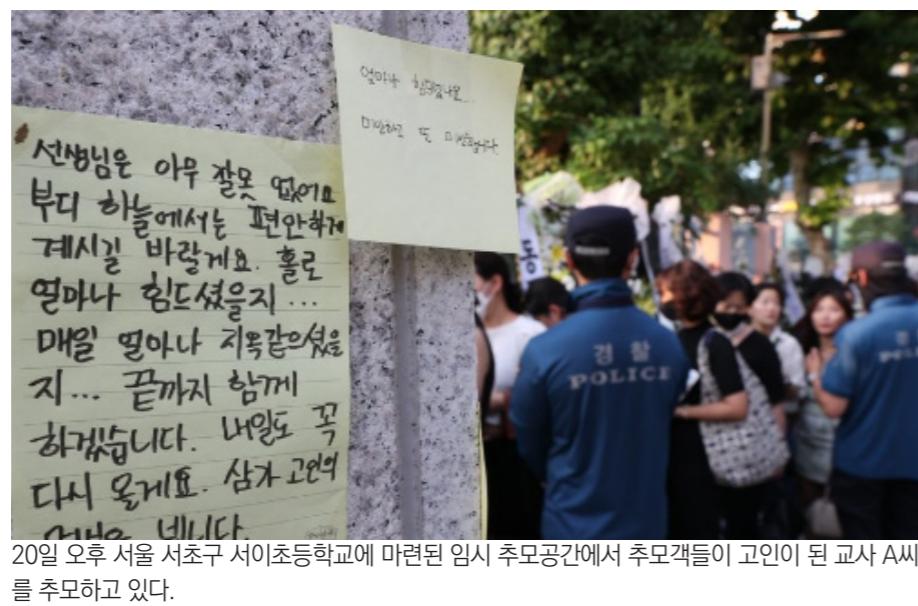
지난 3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사망한 용인시 모 고등학교 체육 교사 60대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안에 담긴 통화기록 및 사진·문서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A씨가 근무한 학교의 교사 등 관계자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온 A씨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추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최근까지 A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는데, 정식 조사가 이뤄지기

전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또 다른 피고소인인 가해 학생 역시 경찰의 정식 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 요청을 한 사실도 있다는 유족 진술 등을 청취하고,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여러 차례의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A씨 가족들은 사망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한편 지난 달 31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약천지역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지난 1일에는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나흘 사이 3명의 교사가 사망해 경찰이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 최윤석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 “부산저축은행 수사때尹 누군지도 몰라”

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윤석열 전가하려 한 공작 의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까운 관계였던 박영수 전 특검의 로비를 받아 주요 피의자를 봐줬다는 김만배씨의 인터뷰와는 전혀 다른 진술인 셈이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수사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를 비

롯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당시 박영수(71·구속기소) 전 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표 등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씨 인터뷰와

“윤석열이 봐줬다”는 김만배 인터뷰와 상반

수사를 지휘하던 최재경(61) 당시 중수부장에게 선을 대보려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중수부 주무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알지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고 나서야 윤 대통령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조씨는 단순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아 알선수재 혐의는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조씨가 알선 주축이었다는 건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대장동 의혹의 프레임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서 윤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김씨가 설계한 ‘공작’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21년 3월부터 김씨가 신씨 얘기를 두어번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2021년 9월 1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하려고) 김씨를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된 정황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신씨를 중심으로 언론계 ‘올드보이’(OB)들을 모아 언론재단을 세우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100억원을 출연, 신씨를 주축으로 하는 언론재단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보도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씨가 언급했다는 언론재단 설립은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신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씨가 ‘윤석열이 직접 (커피를) 타 줬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씨에게서 받은 1억6천여만원 역시 “책을 팔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신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김호진 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고소당한 교원에게 변호사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고소당한 교사에 변호사·비용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1600-8787’로 전화하면 경기교원보호지원센터가 변호사 수임료와 조사·수사기관 동행 등을

/ 이성화 기자

아이유 표절 고발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 고발 행태”



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며 “본 범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판단한다”며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각종 루머를 온라인 상에서 유포해 온 세력에 대한 강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고발 행위 역시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박지원 기자

Global No.1

전 나도 사령관 “흔들렸던 푸틴 권력, 프리고진 사망으로 강화”

“우크라에 집중할 준비돼…조만간 바그너 새 수장 임명할 듯”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망으로 한때 흔들렸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다시 강해졌다고 전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총사령관이 3일(현지 시간) 평가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퇴역 미 해군 제독으로 나토 총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이날 미국 라디오 방송 WA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 사망이 그의 반란으로 약화했던 푸틴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푸틴은 약간의 ‘비행속도’를 얻었고, 다시 우크라이나에 전적으로 관심을 돌릴 준비가 됐다”면서 “이는 우리에겐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했던 프리고진이 의문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숨지면서 푸틴의 권력이 다시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아직은 누가 바그너 그룹을 이끌지 불분명



푸틴 대통령(오른쪽)과 생전의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

하지만 바그너 그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조만간 새 수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바그너는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 궁 금고에 상당한 수입원”이라면서 “용병 단은 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식업으로 성공한 프리고진은 2014

년 바그너 그룹을 창설해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의 분쟁 지역에 용병들을 파견하면서 각종 이권을 쟁기고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지원했다.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에도 참전해 주요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던 그는 6월 말 전쟁 수행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던 국방부 등 러시아군 지휘부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하루 만에 철수하는

자총수를 뒀다.

푸틴 대통령에 의해 ‘반역자’로 낙인찍힌 그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을 멈춘 뒤 용병들을 벨라루스로 이동 배치하고 아프리카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기를 시도했다.

그러다 반란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했다 전용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추락하면서 다른 탑승객 9명과 함께 숨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측은 프리고진 사망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크렘린 궁은 이 같은 추측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다만 지난달 30일 수사 당국이 비행기 추락 원인과 관련한 여러 가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엔 특정 세력의 ‘고의적 악행’도 포함된다고 밝혀 암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김성윤 기자

14만 달러(약 1억8천500만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관광 등 다양한 비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세컨드 훙 비자로 거주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직업을 가질 순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외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일해 돈을 버는 일명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할 수는 있다.

/ 양희진 기자

와 달리 이민국에서 해마다 일시 체류 허가(ITAS)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 시에도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미 카림 이민국장은 “골든 비자를 받으면 5년 또는 10년의 장기 거주 허가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양질의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도 자신가들의 소비를 노리고 일명 ‘세컨드 훙’(Second home) 비자를 도입한 바 있다.

면 10년 동안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회사를 설립해 250만 달러(약 33억 원)를 투자하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투자하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수 있다.

투자자 개인 외에 회사 임원들도 골든

비자를 받으려면 2천500만 달러(약 330억 원·5년) 또는 5천만 달러(약 660억 원·10년)를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골든 비자를 받으면 다른 비자



中입국시 韓감기약 ‘금지성분’ 적발 잇따라…“성분 확인해야”

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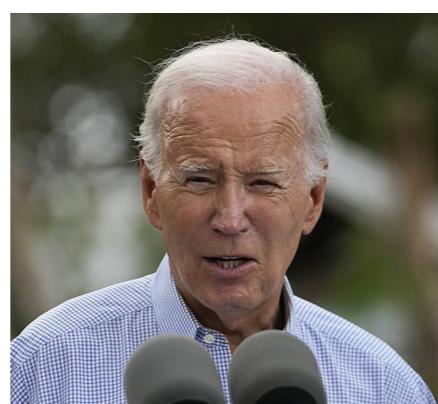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영사 조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최희승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경제패권 경쟁 등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처럼 만난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갈등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개월 뒤 터진 중국 정찰풍선 논란으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고, 최근에서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엘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찾으면서 대화의 온기가 돌려던 참이었다.

/ 송원기 기자

시 주석은 앞서 인도 G20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결국 그의 불참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되게 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였다. 최근 신장웨이우얼 논란과 남중국

22년만에 올뉴 티맵…대중교통·맛집예약 합친 ‘AI 플랫폼’으로

이종호 대표 “AI 기반 개인화로 새 경험 제공할 것”…AI로 맞춤형 서비스

내비게이션 티맵(TMAP)이 대중교통과 숙박·식당 예약 기능 등을 합친 ‘올인원’ 서비스로 재탄생한다.

티맵모빌리티는 4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이종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 뉴 TMAP(v10.0)’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길 안내, 주차, 대리, 전기차 충전 등 운전자 위주의 기존 서비스에 지금까지 별도로 제공하던 TMAP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합했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우티(U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앞으로 ‘올 뉴 TMAP’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 조회·예약 기능을 신규 도입하고, 10월부터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도 추가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장소 검색, 식당·숙박 예약 등 ‘모빌리티 라이프’ 영역도 확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적지 부근 숙박업



티맵 신규 서비스 설명하는 티맵모빌리티 CBO

소나 레저 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예약 기능을 연내 도입한다.

실제 길 안내 데이터와 이용자들이 함께 방문한 장소 데이터 등에 기반해 정말로 많은 사람마다 더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다.

TMAP은 이용자 정보, 활동, 운전 습관 등의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이용자 집단을 분류하고 관심사와 상황을 짜이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은 물론,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한 맞춤형

장소 추천과 교통상황 예측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탈바꿈 한다. 운전 습관과 차량 관리 이력을 활용해 더욱 정교하게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는 서비스도 연내 시작할 계획이다.

TMAP은 이용자 정보, 활동, 운전 습관 등의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이용자 집단을 분류하고 관심사와 상황을 짜이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은 물론,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한 맞춤형 장소 추천과 교통상황 예측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 송유영 기자

BNK부산·경남은행, 중소상공인

추석 자금 1조6천억원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6천억원 규모 ‘BNK 추석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은행별로 8천억원(신규 4천억원, 기한 연기 4천억원)씩, 총 1조6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창업 기업, 은행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최고 1.0% 금리감면도 추가로 지원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년 추석을 앞두고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대출이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차종수 기자

장소 추천과 교통상황 예측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실제 길 안내 데이터와 이용자들이 함께 방문한 장소 데이터 등에 기반해 정말로 많은 사람마다 더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차량 구매·정비 서비스인 ‘카라이프’도 이용자의 운전 이력에 기반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탈바꿈 한다. 운전 습관과 차량 관리 이력을 활용해 더욱 정교하게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는 서비스도 연내 시작할 계획이다.

TMAP은 이용자 정보, 활동, 운전 습관 등의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이용자 집단을 분류하고 관심사와 상황을 짜이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은 물론,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한 맞춤형 장소 추천과 교통상황 예측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Cool하게 낮부터 거래하는 미국주식

“밤에만 거래하란 법은 없으니까!”

하나증권 미국주식 주간거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서미타임 적용]
(서미타임 미적용 시: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까지)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란?

미국주식을 국내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신청없이 기준에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문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마진 매매 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별로 상이(므로) 주로 국가 원화 수수료 : 미국 0.25%, 캐나다 0.3%).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 바랍니다. *미국 주식 매매 시 주당 0.003USD, 매도 시 0.0008% 제비용이 부과되며 기타 해외주식 거래 제비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3-02347호(2023.06.29~2024.06.28)
CC브랜드 230630-0405

하나증권



LG마그나 헹가리 공장 이미지

LG마그나, 헹가리에 전기차 부품 공장 짓는다

유럽 첫 생산기지…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하 LG마그나)이 유럽에 첫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낸다.

LG마그나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 개막에 앞서 4일(현지시간) 개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헹가리 북동부 미슈콜츠시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LG마그나는 오는 2025년까지 연면적 2만6천㎡ 규모의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인 유럽에 처음 건설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구동모터를 생산하며, 추후 고객사 수요에 따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은 동력을 발생시키고 전달하는 구동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으로 구성돼 전기차의 ‘심장’ 역할을 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회사 측은 신규 인력

도 약 200명 채용할 예정이다.

LG마그나는 유럽 완성차 주요 고객사

들과의 접근성, 마그나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헹가리를 유럽 생산기지로 낙점했다.

공장이 세워질 지역인 미슈콜츠시는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발달했으며 우수한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주요 유럽 완성차 공장도 인근에 있다.

흉가리 공장이 완공되면 LG마그나는 한국 인천, 중국 난징, 멕시코 라모스 아리즈페에 더해 총 4개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해외 생산 공장들이 유럽 및 글로벌 사업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LG마그나는 2021년 7월 LG전자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마그나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정원석 LG마그나 대표는 “신규 공장 설립은 유럽 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LG마그나의 성장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NK금융그룹 본사

IP 분쟁에 뒤승승한 게임업계…‘3N’ 모두 저작권 소송 중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안다커’ 저작권 분쟁 장기화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외산 게임의 약진 등으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국내 게임업계가 지식재산(IP)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뒤승승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심문절차가 끝난 ‘다크안다커’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넥슨은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들이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아이언메이스 설립자인 전직 P3 개발팀장 최모 씨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올해 4월에는 수원지법에 아이언메이스 범인과 최씨, 명목상 대표인 박모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형사 고소 사건은 지난 7월

의 처사가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의적 비판과 별개로, 크래프톤이 ‘다크안다커’ IP 자체의 시장성을 높게 보고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크래프톤의 전신인 블루홀스튜디오는 과거 엔씨소프트[036570]에서 퇴사한 ‘리니지3’ 개발진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리니지3’ 개발진 일부는 국내 대형 게임사인 크래프톤[259960]이 아이언메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다크안다커’ 모바일 판권을 독점으로 확보하기 했다.

크래프톤은 “향후 나을 사법적 판단을 제삼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은 보여준 원자 지식재산의 생명력이 이어져야 할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가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게임을 출시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 김강우 기자

GGM,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 위해 11월 가동 중단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4일 광주시와 GGM에 따르면 GGM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잠정) 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 내연 기관차에 전기차까지 만드는 혼류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GGM은 내년 상반기 시험 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GGM은 설비 보완 기간을 고려해 올해 캐스퍼 생산 대수를 지난해(5만 대)보다 10% 줄어든 4만5천대로 조정했



GGM 공장

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광주시는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생산체계 전환 시기에 대표이사도 교체된다. 한차례 임기를 마치고 2년을 연임한 박광태 초대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11월 2일 만료된다.

다만 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임기도 11월 만료돼 새 원장 공모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그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GGM 새 대표 선임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 임민혁 기자

상암 새 쓰레기 소각장 결정난 마포구, 서울시에 “전쟁 불사”

박강수 구청장, 예정지 앞 회견…“시, 폐기물 감량 제안 묵살…강력투쟁”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4일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며 시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 기존 소각장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결사항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는 15년간 1t 트럭 1억1천만대 분량의 쓰레기를 난지도에 매립해 ‘쓰레기 삼’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750t 규모 기존 소각장으로 지금껏 고통받아온 마포구를 신규 소각장 최종 대상지로 선택한 것은 지역 협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구는 기존 소각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에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소각 쓰레기 성상(성질·상태)과 소각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장 신설에 앞서 쓰레기 감량 결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신설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면저라는 판단으로 전처리시설 도입·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는데 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소각장 수를 늘리면 된다는 일차원적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눈앞에 보이는 가장 쉽고 편리한 ‘소각’이라는 해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마포구는 물론 종로·중구·용산·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을 함께 소각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준공 후 현행 권역별 소각장 공동 이용체계의 개편을 위해 25개 자치구 공동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권역 이외 쓰레기가 마포구로 유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기존 소각장의 운영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포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불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생활폐기물 쿼터(할당)제를 도입하고, 기존 광역 소각장 4곳의 성능 개선을 통해 추가 소각장 없이도 3천200t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구 자체적으로는 소각 쓰레기 감량,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소각 제로 가게’ 확대, 필요시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지나 구매비용 대폭 인상 등을 실행해 생활쓰레기가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제안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울시에 강력히 전하며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다면 37만 구민과 함께 물려설 없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시청 현관서 대치

오송참사 유족들 “분향소 유지하라”

청주시청 진입 농성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4일 충북도와 청주시의 시민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청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들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은 이날 정오께 잠겨있던 청주시청 현관문을 완력으로 밀어 열고 내부로 진입해 이범석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시장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에서 시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유가족 등은 경찰이 출동해 시장실 진입을 막자 계단과 현관에서 농성 중이다.

시는 유가족 대표와 신병대 부시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앞서 오전 11시부터 시청 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희생자 분

향소를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기간만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도는 유가족과 동의 없이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안심시키고는 49재 추모제가 끝나자마자 분향소를 철거했다. 군사 작전하듯 심리전까지 써가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그간 지자체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분향소를 정리하려는 태도에 상처받았다”며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분향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도나 시가 이야기하는 유가족 예우가 이런 것인지 책임하고 우통당한 느낌”이라며 “상식적으로 유가족을 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희성 기자

인천 송도~강남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하루 8회 증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송도와 강남역을 오가는 M6405 노선으로, 운행 횟수가 출·퇴근

시간대 각 4회, 하루 8회씩 늘어난다.

송도~강남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요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하루 100회 이

상(평도 기준)이다. 버스 증차에 따라 출근 시간대(오전 6~7시) 배차 간격은 기존

1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퇴근 시간대 (오후 6~7시) 배차 간격도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인천경제청은 M6405를 포함한 송도~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을 지속해 모니터

링하고, 전세버스 추가 투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M6405 노선은 특히 이용객이 많아 시민 불편이 커다”며 “앞으로도 송도·영종·청라에서 들어온 교통 불편 민원 26건을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청현 기자



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유치 효과 ‘쏠쏠’

전남 강진군의 바다낚시 어선 유치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마琅항 바다낚

시 어선 유치가 시작된 지난 7월 이용객은 1천206명, 8월 1천271명으로 가

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유치 이전인 지난 6월 한 달은 고작 40명이었다.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제 유발 효과만도 누적액 4억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군은 자평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바다낚시 어선 유치 대수를 지속해 늘리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경준 기자

경남 우수 농특산물, 쿠팡서 판매…소비 진작 기획전 운영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4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 중 하나인 쿠팡에서 ‘경남 우수 농특산물 마켓플레이스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해 12월 14일 경남도와 쿠팡이 체결한 도내 우수 농특산물 판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종근 부영 회장, 여수·순천·광양에 고향사랑기부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고향인 전남 순천과 여수, 광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3 A Farm Show(에이팜쇼)’ 참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해 기부의향서를 작성했다. 이 회장은 여수·순천·광양시에 500만원씩을 기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회장이 ‘고향인 순천과 여수·광양은 한 지역으로, 부영그룹이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돼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신지호 기자

KOMIR, 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품다

“충북 광천석면광산 산림복구사업 준공지”

• KOMIR 탄소중립

- 탄소흡입 산림조성
- 광산 탄소저감시설 지원

• KOMIR 동반성장

- 중소광산 기술고용지원 및 성과공유

• KOMIR Safety

- 광산안전컨설팅
- 안전시설지원

• KOMIR 뉴딜

- 산림자원 등 활용
- 도시재생 사업

'해트트릭' 손흥민, BBC 베스트11 선정...홀란·퍼거슨과 함께

해트트리를 폭발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크넘 톱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영국 BBC방송이 선정한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4일(한국시간) 2023-2024시즌 EPL 4라운드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 손흥민과 함께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에번 퍼거슨(브라이턴)을 뽑았다.

세 선수는 1995년 9월 로비 파울러·앨런 시어러·토니 예보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EPL에서 같은 날 해트트리를 폭발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번리와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6분, 후반 18분, 21분 득점포를 가동하며 토크넘의 5-2 대승을 이끌었다.

4만여명이 참여한 EPL 공식 홈페이지



제임스 매디슨, 손흥민, 크리스티안 로메로

팬 투표에서 58.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팀 동료 제임스 매디슨(27.1%)을 제치고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혔고, 현지 매

체 풋볼런던에는 무려 '평점 10'을 받았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과 풋

볼 평점도 모두 양 팀 통틀어 최고인 9.6 이었다.

홀란은 풀럼, 퍼거슨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나란히 3골씩 터뜨렸다.

손흥민과 주장단을 이루는 부주장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각각 미드필더,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매디슨은 포함해 마르틴 외데고르, 데클린 라이스(이상 아스널), 도미니크 소보슬리(리버풀)가 4라운드 최고 활약을 펼친 미드필더로 선정됐다.

로메로는 퀴어트 주마(웨스트햄), 조 위렐(노팅엄 포리스트)과 3배를 이뤘다.
BBC는 골키퍼 자리에는 조던 피퍼드(에버턴)를 골랐다.

/ 이현우 기자



1라운드 1순위로 KB 유니폼을 입은 고현지

류현진, 7일 오클랜드전서 4승 도전

나흘 쉬고 새 포수와 출격



생애 두 번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도 승승장구하는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즌 4승에 재도전한다.

토론토 구단은 4일(한국시간) 류현진을 7일 오전 4시 37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클리시엄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 경기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지난해 6월 수술대에 올랐던 류현진은 지난 달 백리그에 복귀한 뒤 주변의 우려를 깨고 매 경기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 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서 타구에 다리를 맞아 4이닝만 던진 걸 제외하면, 매 경기 5이닝을 책임지며 순항 중이다. 그는 복귀 후 6경기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2.48의 성적을 올렸다.

투구 내용도 좋았다. 트레이드 마크인 송곳 제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워 안

정적인 경기력을 뽐냈다.

지난 2일엔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쿠어스 필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 타선을 5이닝 2실점으로 막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불펜의 방화로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다.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나흘 휴식 후 선발 등판이라는 점도 걸린다. 류현진은 그 동안 5일 이상 휴식 후 마운드에 올랐다.

오클랜드전에서 복귀 후 처음으로 6이닝 이상을 책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류현진은 복귀 후 치른 6경기 중 5경기에서 5이닝만 채우고 6회에 교체됐다. 투구 수도 90구 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 팔꿈치 회복을 염두에 둔 토론토 구단의 조치다.

류현진은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진출 갈림길에서 공을 던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토론토는 4일 콜로라도전에서 7-5로 승리했으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3위 팀인 텍사스 레인저스도 승리하면서 두 팀 간 승차는 1.5 경기 차를 유지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기 위해선 와일드

카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오클랜드전

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다.

/ 권도경 기자



(왼쪽부터) 여자탁구 서효원, 전지희, 신유빈

'신유빈 뽐내기' 여자탁구 단체전,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 4강 진출

한국 여자탁구대표팀이 2023 제26회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4강에 진출했다.

신유빈(대한항공), 전지희(미래에셋증권) 등을 내세운 여자탁구대표팀은 4일 강원 평창돔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8강에 서 태국을 3-0으로 완파했다.

첫 주자인 전지희는 깊은 각도로 빠르게 공격을 시도한 태국 에이스 수타시니 사웨타붓을 상대로 1게임과 3게임에서 듀스 접전을 펼친 끝에 3-0(14-12 11-9

17-15)으로 제압해 리드를 잡았다. 이어

신유빈이 오라완 파라낭을 3-2(6-11 12-

10 15-17 11-9 11-4)로 꺾었다.

파라낭의 공격에 초반 고전을 면치 못

한 신유빈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을 찾아가며 상대의 범실을 유도했고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

3단식에 나선 서효원(한국마사회)은 지니파 사웨타붓을 3-0(11-5 11-6 15-13)으로 가볍게 누르고 한국의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신유빈은 경기 뒤 "방심하지는 않았지만, 공격과 수비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돌아본 뒤 "다음 시합에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주장 서효원은 "계속 서로를 믿으며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한호준 기자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 조문주의 딸인 수피아여고 포워드 고현지(18·182.2cm)가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청주 KB 유니폼을 입었다.

고현지는 4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2023-2024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KB에 지명됐다.

고현지의 어머니는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조문주다. 고현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이미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여고부 최우수선수(MVP)로 뽑혀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로 관심을 모았다.

고현지는 지난해 국제농구연맹(FIBA) 17세 이하(U-17) 여자농구 월드컵과 FIBA 18세 이하(U-18)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이날 오전 선발회에 앞서 드래프트 참가 선수들의 신장, 체중을 비롯해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캠비인을 진행한 결과 고현지는 윙스팬(187.0cm)과 맥스 버티컬 점프(73.4cm)에서 1위를 차지했다. 맥스 버티컬 점프 리치는 303.4cm를 찍어 WKBL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오전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1순위를 차지한 KB의 김완수 감독은 고현지의 이름을 불렀다.

KB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고현지는 "1순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한 뒤 "KB 관계자들께 감

/ 최준용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아이브, 내달 첫 미니음반…트리플 타이틀곡 발표

데뷔부터 연타석 홈런…4세대 걸그룹 전성시대 열어젖혀



걸그룹 아이브

걸그룹 아이브가 다음 달 13일 첫 번째 미니음반 '아이 해브 마인'(I'VE MINE)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아이브는 새 음반 타이틀곡으로 '이더 웨이'(Either way),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배디'(BADDIE) 세 곡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신보 발매에 앞서 이달 25일 '이더 웨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오프 더 레코드'와 13일 '배디'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먼저 공개한다.

아이브는 이날 공식 SNS에 신보 발매

를 알리는 포스터를 게재했다.

아이브는 2021년 12월 '일레븐'(ELEVEN)으로 데뷔한 이래 '러브 더 디브'(LOVE DIVE),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 '키치'(Kitsch), '아이엠(I AM)에 이르기까지 내는 노래마다 히트를 기록했다. 이들은 이로써 연말 음악 시장에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받는 진기록을 썼고, 가요계에 이른바 '4세대 걸그룹 돌풍'을 일으킨 주역으로 평가 받았다.

스타쉽은 "아이브는 세 곡의 타이틀곡이 담긴 이번 신보를 통해 음악적 성장을 증명하고 자신만의 무한한 매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브는 다음 달 7~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월드투어 '쇼 와이 해브'(SHOW WHAT I HAVE) 서울 공연을 열고 팬들을 만난다. / 흥현주 기자

"스트레이 키즈, 올해 美 앨범 최다 판매 가수 2위"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수 2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JYP는 이날 미국 음악 차트 분석 X(트위티) 계정 '차트 데이터'를 인용해 스트레이 키즈가 텔러리 스위프트에 이어 2위였다고 전했다.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 6월 발표한 정규 3집 ★★★★☆(파이브스타)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K팝 앨범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 10월 발매한 미니음반 '맥시던트'(MAXIDENT)도 이 부문 10위에 올랐다.

현지 가수를 포함한 앨범 판매량 순위에서도 '파이브스타'는 텔러리 스위프트의 '미드나잇즈'(Midnights)·'스피크 나우'(Speak Now)와 트래비스 스콧의 '유토피아'(UTOPIA)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해 미니음반 '오디너리'(ODDINARY)를 시작으로 '맥시던트'에 이어 '파이브스타'까지 세 장의 음반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올려놓은 바 있다.

스트레이 키즈는 이달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리는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 출연해 3집 타이틀곡 '특' 무대를 꾸민다. 또 이달 교세라 돔 오사카와 다음 달 도쿄 돔에서 데뷔 후 첫 돔 투어를 이어간다.

이들은 이달 2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2023 Global Citizen Festival)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무대에 오른다.

/ 이현승 기자

올해 영평상 작품상에 '다음 소희'…'올빼미' 3관왕

'비닐하우스' 김서형·'올빼미' 류준열 각각 남녀주연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제4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작품상 수상작으로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이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 폐막작에 선정됐으며, 올해 2월 국내 개봉 이후 현장실습생 문제가 재조명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에서 실습생 '소희' 역을 맡은 김시은은 신인여우상의 영예를 안았다.

감독상은 '드림밸리스'를 연출한 가성문 감독에게 돌아갔다. 산업재해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가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다.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은 각각 '비닐하우스'의 김서형, '올빼미'의 류준열이 가져갔다. '올빼미'는 신인감독상(안태진)과 활영상(김태경)도 거머쥐면서 3관왕에 올랐다. 여우조연상은 '드림밸리스'의 이윤지, 남우조연상은 '밀수'의 김종수가 수상한다. '밀수' 역시 음악상(장기하), 기술상(이후경)까지 가져가며 3관왕을 차지했다.

공로영화인상 수상자로는 이우석 동아수출공사 회장이 선정됐다. 협회는 "1960년대부터 외국 영화를 수입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 영화를 제작하는 등 명실상



부 한국 영화 제작자의 산증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로평론가상은 정중헌 영화평론가가 수상한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문화부장을 역임한 그는 청룡영화상 운영·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의 국내 영화 부문은 '비밀의 언덕'의 이지은 감독에게, 국외 영화 부문은 '라이스보이 슬립스'의 앤서니 심 감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제43회 영평상 시상식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광명호 기자

쿠팡, 연예 매니지먼트사 설립 전속계약 1호는 신동엽



쿠팡이 연예 매니지먼트사 씨피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방송인 신동엽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종우 씨피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가 작품 활동에 만 집중할 수 있

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신 씨와 17년간 함께 일해왔다.

한편,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쿠팡의 자회사이며, 쿠팡은 와우멤버십 혜택 중 하나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제공 중이다.

쿠팡플레이는 "글로벌 OTT의 독점이 우려되는 국내 시장에서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우수한 한국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해 제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해성 기자

배우 윤현민-백진희, 7년 연애 끝 결별



윤현민 소속사 이엘파크도 "결별이 맞는다"고 전했다. 윤현민과 백진희는 2016년 종영한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남녀 주인공을 맡았고, 이듬해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커플'로 화제를 모았다.

2010년 뮤지컬 '김종우 찾기'로 데뷔한 윤현민은 드라마 '연애의 발견', '보라! 데보라!' 등에 출연했고, JTBC 예능프로그램 '웃는 사장'에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이다.

백진희는 지난 3월부터 방송 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주인공 오연우 역을 맡아 극을 이끌고 있다.

/ 오준혁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년을 위해, 경기 Do.

배우고 싶던 거, 보고 싶었던 세상,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너하고 싶은 거 다 해"

www.cheerup31.com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KB금융그룹 | 국민의 힘상
금융파트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환전에 혜택을 꽉 채웠다

KB스타뱅킹에서 만나는
KB외화머니박스

환율 낮을 때 모아두고 여행갈 때 바로 찾고
환율 우대는 최대 90%까지!
이런 게 KB국민은행의 새로운 환전혜택!



KB외화머니박스

KB외화머니박스는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입니다



KB외화머니박스 바로가기

1 최대 90% 환율 우대

놀라운 환율 혜택은 기본, 원하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2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되팔기, 선물을 자유롭게!

3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환전한 외화 실물도 택배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편하게!

*외화 실물 수령 희망 영업점별로 보유 권종이 다를 수 있으나, 필요하신 권종(소액권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밀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사정의 한계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시 적용한 환율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 및 이자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 현금을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그외 통화 3%) *KB외화머니박스 환전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첫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